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3. 12.(일) 11:00 3.13.(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0.(금) 16:00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1-2618)

농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 -
-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구성 · 운영 -

주요 내용

1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율성 제고

○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 연말 · 연초에도 TNR 실시(`24)

○ **군집 TNR*** 방식으로의 전환 유도(군집 TNR 방식 확대 지원)(`23~)

* TNR(Trap-Neuter-Return) :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하여 다시 방사

○ 밥자리 위생 관리 등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23.下)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 **포획·방사 절차 구체화** 및 포획업자 교육 등 관리·감독 강화(`24)

○ **동물병원 선정 개선**(최저입찰제→정성·정량 평가), 우수사례* 도입(`24)

*** 우수사례 발굴('23) : (예시) 대한수의사회 지역분회의 사업 참여, 지자체 TNR 직영 등**

○ 포획-수술-후처치 전 과정의 품질개선을 위한 지자체 전수조사(`23)

3 중성화 수술 과정 전문성 제고

○ TNR 참여 **수의사 교육**(연1회 의무), 우수병원 추천(`24, 대한수의사회 협조)

○ 대한수의사회 주관,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23.下)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동물병원 점검 내실화(`23.下)

4 통일된 길고양이 복지 의견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구성, 주요 이슈 논의·협의(`23)

*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학계 등 길고양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영국) 'The Cat Group' 형성, 고양이 복지·관리에 대한 통일된 의견 마련

○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교육 · 홍보 활성화(`2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하였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고양이 양육 가구 비율(추정) : ('18) 3.4% → ('22) 7.1%
7대 특·광역시 밥자리 개수(km²당, 2022년 추정) : 80개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 길고양이 포획·방사 주요 개선 내용(안) : 포획 단계별 사진 자료 추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등 유의 사항 포함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 추천을 통해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여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다.

* 미국·영국에서는 수의사회에서 만든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활용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하여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 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예: 길고양이 생태적 특성 연구 `23).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예. 봉사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영국) 동물보호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The Cat Group' 형성,** 고양이 돌봄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 마련하여 개선 추진(정책 건의 포함)

붙임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요」 및 세부과제 추진일정(안)
2. 해외 길고양이 TNR 사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요 및 세부과제 추진일정(안)

□ (사업 배경)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함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방사에 따른 비용 지원*('18~)

* **마리당 20만원**(국비 20%, 지방비80%), 기존 15만원에서 단가 인상('22~)

□ (사업 방식)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 고려해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절차 >

민원 접수	⇨	포 획 (Trap)	⇨	중성화 수술 (Neuter)	⇨	후처치 (1~3일이상)	⇨	방 사 (Return)
계획 수립		위탁기관·단체		동물병원		동물병원		위탁기관·단체

○ (민원인) 신고 → (시·군·구) 접수, 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 전달 → (위탁업체) 포획인 동원,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

○ (포획인) 현장 출동 → 사진 촬영 및 포획 →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

○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 후처치 및 회복 → (포획인) 포획장소에 방사

□ (사업 실적) '18년부터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실시, '22년까지 **총 길고양이 35만 8천여마리** 중성화 시행

< 연도별 사업실적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잠정)	**합계**
사업량(마리)	52,178	64,989	73,632	83,539	83,558	**357,896**

□ (**지자체 자체** 추진) 서울시 등 **12개 시·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최근 5년간 약 9만 3천여 마리의** 길고양이 TNR 시행*

□ 이 외에도 **동물보호단체**의 TNR 지원사업, **수의사 자원봉사, 캣맘 개별추진** 등이 있으나, 추정 어려움

□ 세부과제 추진일정(안)

추진과제	일정	소관
[1]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율성 제고		
ㅇ 고시 및 사업 지침 수정(계약기간 3년 허용 등)	'23.下	농식품부
ㅇ 군집 TNR 확산 유도	'23	농식품부
ㅇ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밥자리 관리, 중성화 등)	'23	농식품부
ㅇ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시행	'23~	농식품부
[2] 중성화 사업의 중성화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및 역량강화		
ㅇ 포획·방사 개선 및 교육 실시	'24~	농식품부
ㅇ 동물병원 선정방식 개선(정성·정량 평가, 지자체 직영 등)	'24	농식품부
ㅇ 우수사례 발굴 및 도입	'23~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지자체
ㅇ 포획업자, 동물병원, 후처치 시설 지자체 전수 조사	'23	농식품부
[3]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 제고		
ㅇ 중성화 수술 사업자(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교육 의무화	'24~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ㅇ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	'23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ㅇ 중성화 사업 실시 병원에 대한 수의사회 추천	'24~	대한수의사회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자료 마련·배포	'23.下	농식품부
ㅇ 후처치 시설 실태점검	'23~	지자체
ㅇ 후처치 시설 운영기준 마련	'23	농식품부
[4] 통일된 길고양이 복지 의견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ㅇ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구성	'23	농식품부
ㅇ 길고양이 학술 연구 및 통계작성 추진	'23~	농식품부
ㅇ 대한수의사회 진료 봉사 확대	'23~	대한수의사회
ㅇ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23~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붙임2 **해외 길고양이 TNR 사례**

1. 미국

□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 주도

○ 미국 동물학대방지연합(ASPCA*)은 **중성화 전문센터**(2곳) 운영, 구조전문가가 포획해 오는 길고양이를 전담하여 TNR 실시**

*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1866~)

** 2019년 뉴욕시에서만 약 50만 건의 중성화 수술 달성

- 길고양이 외에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과 병행

○ 보호단체 외 TNR 교육을 수료한 **개인**에게도 **구조전문가** 자격 부여

* 동물보호단체는 구조전문가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차량, 포획틀 대여 등 제공

□ 수의사단체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TNR 가이드라인 발행

○ 동물보호소수의사협회(ASV*)에서 **수술대상 동물의 선택, 수술 준비·시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속 개정**

*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2001~)

** '08년 1차 가이드라인 발표 → '14년 최신 연구들을 근거로 2차 발행 → '16년 3차 발행

※ ASV 길고양이 중성화 가이드라인(2016) 주요내용

- 중성화 수술 시기는 **5~6개월령** 권장, 모든 수술의 결정은 길고양이가 이후 다시 중성화, 예방접종, 구충 등 **수의학적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
- **임신·수유 개체** 등도 안전하게 중성화 수술을 하되 고양이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 기생충 등 **경미한 질환**은 중성화가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 시 수술 진행
- 모든 수술기구 및 부위는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절개 부위·크기** 등 세부 사항은 수의사별 적정한 방식의 채택 및 고양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물보호단체(ASPCA 등)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특화된 수의학적인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의과대학** 등에 **교육비용 지원**

□ 동물보호단체가 시행하는 TNR 교육 이수 시 혜택 제공

○ 뉴욕시의 경우 TNR certification workshop* 이수 시 동물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 **포획틀 대여**, 포획 후 **차량 이용** 등 혜택 제공

* 길고양이의 행동, 포획틀 설치 방법, 중성화 수술 전·후 관리방법, TNR 모범사례 등

2. 영국

□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 TNR 및 저소득층 중성화 수술 지원

○ 영국은 1950년대부터 TNR을 진행했으나, 정부 주도의 확산보다 **민간중심의 사업 수행**을 유도

○ 동물보호단체(RSPCA 등) 주도로 지역 동물병원과 협력

- RSPCA 지부 및 여러 민간단체의 자체 사업, 저소득층도 대상

□ 여러 민간단체가 그룹을 형성하여 통일된 고양이 관리 가이드라인 발행

○ 동물보호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The Cat Group'을 형성하여 고양이의 복지 및 관리에 대한 하나의 정책을 개발, 홍보

※ 영국의 'The Cat Group'

- RSPCA, 국제고양이과학회, 영국소동물수의사회, Battersea Dog&Cats 등 고양이 관련 단체 다수로 구성
- 고양이 관리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했으나 **통일된 정책과 권장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결성**
- 중성화 적정 시기 및 대상에 대한 자체 논의 진행하여 뉴스를 발행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진행
- 그 외에도 고양이의 질병예방관리법, 동물복지종사자 교육 매뉴얼 발간, 고양이 할퀴병 예방 등 공존을 위한 안내 제시

○ 영국도 미국 동물보호소수의사협회(ASV)의 TNR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통된 방식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 학계 등 협업을 통해 민간차원의 길고양이 기초 연구 병행 실시

○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을 위해 조사 실시, 학계와 동물단체가 지원

○ 길고양이 밀집지역 및 중성화 사업 효과를 파악하여 지역별 중성화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3. 일본

□ **동물기금(비영리민간단체)과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길고양이 TNR 실시**

○ **(동물기금)** 사전에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동물병원**을 섭외한 후 **지자체, 일반 법인·단체, 개인 등이 신청**하면 **중성화 바우처** 제공

- 특히, 지자체가 동물기금에 신청할 경우 현장 출장을 통해 해당 **지역 내 길고양이**(약 50마리)**를 집중 수술**하는 서비스 시행

○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에서 TNR 및 밥자리 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금*** 보조

□ **길고양이 복지개선 및 주민갈등 완화 위해 정부가 지역고양이 돌봄제도 운영**

○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地域猫活動)**을 지원**하고 **활동 가이드라인** 배포(동물단체 협업) * 자원봉사자로 등록, 활동 시 완장 착용

- 주민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길고양이 밥주기, 포획·중성화 등 돌봄 활동을 하도록 권장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는 ①**먹이 관리***, ②**고양이 화장실 만들기 등 환경미화**, ③**중성화(TNR)**, ④**입양자 찾아주기** 등 포함

*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을 주고, 먹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정리 등 강조

<지자체 홍보포스터 및 고양이 화장실 만들기 활동>





